“민들레처럼 국경 넘어 사랑을”

국경없는민들레, 7월 인도 라다크 레서 의료봉사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민들레는 바람을 타고 벽을 넘어 어디든 정착해 꽃을 피운다. ‘국경없는민들레’는 민들레처럼 국경을 넘어 의료봉사로 부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창립됐다. 국경없는민들레는 울산 정토마을이 운영하는 해외의료구호사업단으로 의료지원이 절실한 오지마을을 방문, 지원하고 있다.

울산 정토마을(이사장 능행) 국경없는민들레가 오는 7월 8~17일 인도 라다크(Ladakh) 레(Leh) 지역으로 의료봉사를 떠난다.

레는 해발고도 3,520m 고산 지대로 4개월의 여름(6월~9월)과 8개월의 긴 겨울(10월~5월)이 있다. 겨울에는 기온이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지며 눈으로 인해 주요 도로가 통제된다. 작은 티베트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지만 의료시설 및 환경은 열악해 지원이 필요하다.

국경없는민들레는 레 지역에 위치한 ‘라다크 심장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의료봉사를 진행한다. 라다크 심장재단은 이사장 초겔 스님이 라다크 고산지대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 세운 의료재단이다.

라다크를 비롯한 히말라야 지역은 고산지대로 기압이 낮아 심장 기능이 중요하다. 몸에 피를 보내야하는 심장의 기능과 역할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요구된다. 라다크 지역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심장 판막이 닫히지 않는 병에 걸려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며, 특히 어린이들의 심장병 발병율이 높다.

라다크 심장재단 병원서 활동
전문 봉사인력 40명 의료지원
의료물품과 생활용품도 전달
11월에는 9박10일 스리랑카로

국경없는민들레 의료봉사팀은 승가 10여 명을 포함해 양방과 한방 전문의료진, 홍보 봉사팀 등 40명이 동참한다. 전문 의료장비를 직접 가져가 체계적으로 진찰하고 문진으로 예방 및 치료에 집중할 계획이다.


울산 정토마을 국경없는민들레가 다가오는 7월 8~17일 인도 라다크(Ladakh) 레(Leh) 지역으로 의료봉사를 떠난다. 사진은 지난해 의료구호활동 사진.

한국에서 마련한 의료 물품 및 생활품도 지원한다. 의료물품은 어린이종합영양제, 칼슘제, 영양제, 철분제, 오메가3, 파스, 구충제 등이며 생활용품은 겨울 보온에 필요한 털장갑, 모자, 양말, 겨울점퍼, 넥워머 등이다.

국경없는민들레는 미얀마, 보드가야를 비롯해 해외 오지를 중심으로 의료활동을 펼쳐왔으며 이번 라다크는 의료구호 활동 4회째를 맞는다. 1년에 한 번씩 구호활동을 진행했지만 올해부터는 두 번으로 횟수는 늘리고 다가올 11월 11일에는 9박10일 일정으로 스리랑카로 떠난다. 국경없는민들레는 구체적인 의료구호사업을 위해 서비스뿐 아니라 진료소를 세우고 의료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토마을 사무국 김현아 팀장은 “정토마을 비전이 ‘인류와 일체 생명의 평화적 공존에 기여한다’이다”며 “국경없는민들레는 해외 의료 구호 사업으로 이타행을 실천하고 평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경없는민들레는 해외 구호사업 후원 동참도 독려했다. 후원은 의료약품 및 각 나라특성에 맞는 생활 용품 등으로 하면 된다. (052)255-8588

진여원 “호국은 미래 잇는 국민정신”

제21회 진여호국영령 위령재 · 보훈가족 위안행사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보훈 가족을 초청해 감사인사를 전하는 진여 호국영령 위령재가 봉행됐다. <사진>

대한불교 진여원(원장 남보타월)은 6월 13일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 내 현충근린공원에서 제21회 진여호국영령 위령재 및 보훈가족 위안행사를 봉행했다. 행사는 위령재와 추모식으로 시작해 유공자 표창 및 보훈 유가족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장학금은 유가족 자녀 14명에게 총 540만원이 전달됐으며, 위령재에는 부산불교연합회장 경선 스님, 부총장 동암 스님을 비롯해 보훈단체 및 유가족 등 500여 명이 동참했다.

경선 스님은 “진여원과 여러 보훈가족이 위령재를 봉행하고 애국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받드는 것은 한반도 평화의 근간을 들여다보는 아주 가치 있는 일”이라며 “원치 않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희생당한 이들이 있기에 현재 우리가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모비는 진여원 남보타월 원장을 비롯해 신도들의 십시일반 정성으로 건립됐으며 6.25 전쟁 등 애국선열 428위의 영령이 모셔져 있다. 특히 현충 그린공원 내 호국영령추모비 비문을 회장 경선 스님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위령재는 부산 북구청과 부산지방보훈청, 부산불교연합회, 53사단 125연대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송월 스님 서예 · 문인화 전시회

6월 30일까지 군산경찰서 2층 갤러리서

태고종 서예 문인화부문 명인으로 선정된 군산 성흥사 회주 송월 스님의 작품이 군산 경찰서 2층 갤러리에 전시되고 있다. 6월 30일까지 ‘붓꽃 나를 놓아주는 지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담담한 수묵화법으로 한국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송월 스님의 서예와 문인화 작품들을 선보인다. 송월 스님 특유의 고요하면서도 힘이 느껴지는 서체를 감상할 수 있다.

송월 스님은 “자연 속에서 무심히 그렸던 작품 한 점마다 붓끝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줬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며 “이번 작품전이 감상하는 이들에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따뜻한 기운을 느끼게 하는 전시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가족과 함께하는 청소년 문예마당

부산 BBS, 제4회 문예창작마당

가족과 함께하는 부산문예창작마당이 개최됐다.

BBS부산불교방송(사장 수불)은 6월 15일 삼정더파크 동물원에서 제4회 부산문예창작마당을 개최했다.

(사)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와 공동주최한 부산문예창작마당에는 부산 지역 내 어린이와 청소년 등 400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 분야는 글짓기, 그리기, 사진 등이며 주제는 ‘만남’이 제시됐다.

부산BBS 사장 수불 스님은 “부산불교방송은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는 참된 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문예 창작마당을 통해 가족들이 함께 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수 작품은 수상 결과는 6월 28일 부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100일기도 회향 ‘생명 나눔으로’

부산 여래사불교대학 난치병 후원금 전달

부산 여래사불교대학 불자들이 가족을 부처님처럼 여기며 살 것을 다짐하고 100일 동안 기도를 이어갔다. 회향일을 맞아 기도에 동참한 불자들은 십시일반 모은 성금을 난치병 환우들을 위해 회향하며 “난치병 환우는 또 다른 우리의 가족”이라고 말했다.

여래사불교대학(학장 원범)은 6월 19일 4층 불교대학 내 법당에서 제1차 100일 기도 회향식을 열고, 난치병 환우들을 위한 후원금 300만원을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에 전달했다.

여래사불교대학은 지난 3월 12일 ‘가족을 부처님처럼’이라는 주제로 100일 기도를 시작했다. 100일 동안 불자들은 △가족을 부처님같이 생각하기 △108배 참회 △30분간 가족들과 대화하기 △불서 30분 이상 독서 등을 서원하고 실천했다. 아울러 난치병 환우를 위해 기도하고 모은 성금을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에 전달했다.


여래사불교대학은 6월 19일 4층 불교대학 법당에서 난치병 환우들을 위한 후원금 300만원을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에 전달했다.

여래사불교대학은 “앞으로 ‘가족을 부처님처럼’이라는 주제로 기도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며 “하루에 한 번 1000원씩 모은 성금과 불전함에 모인 보시금을 합쳐 우리들의 또 다른 가족인 난치병 환우에게 치료비를 전달했다”고 의미를 강조했다.

한편, 여래사불교대학은 7월 5일 오후 7시 불교대학 내 법당에서 ‘공성의 지혜, 공동체의 덕성함양을 위하여’란 주제로 특강을 개최한다.

강사는 신상환 중관학당 대표가 담당한다. 신상환 대표는 타고르 대학이라 알려진 인도의 비스바 바라띠 대학 인도 티벳학과에서 티벳학 석사, 산스크리트어 준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캘커타 대학 빠알리어과에서 철학박사를 받고 조교수로 재직했다. 2013년 귀국해 중관학당을 열어 역경과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주요 저서는 〈용수의 사유〉 〈세계의 지붕 자전거 타고 3만리〉 〈풀어 쓴 티벳 현자의 말씀〉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중관이취육론〉 등이 있다. 특강 참가비는 3만원이다. 010-8801-4037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낙단보 마애사 1주년 방생법회

의성지역 사부대중 300여 명 함께 기념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 말사 낙단보 마애사(주지 원종)는 6월 15일 수륙고혼 천도재를 비롯해 방생법회 및 효잔치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방생법회에는 마애사 주지 원종 스님과 김주수 의성군수, 의성군의회 의원과 지역기관장, 단체장, 의성군포교사단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낙단보 마애사 주지 원종 스님은 “마애사 개원 1주년을 맞아 방생도량에서 수륙재를 봉행하고, 그동안 마애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지역 어르신과 주민들에게 사찰음식으로 공양 올리고 싶어 조촐한 기념행사를 열게 됐다”며 “서로가 나눠 가지는 행복한 삶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마애사 주지 원종 스님은 그동안 고마움과 나눔의 마음으로 김주수 의성군수에게 의성군 장학기금 200만원을 기탁하고, 단일면 단체발전기금 100만원을 면장에게 전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제2회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

수계는 三師七證師

삼보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참된 나를 찾아가는 행복한 삶의 길잡이입니다.

삼귀의계오계 수계를 통해 불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길 서원합니다.

좋은 인연에 동참 바랍니다.

일 시
2019년 7월 6일
토요일 오후 3시 ~ 5시

장 소
부산항 컨벤션센터
이벤트홀(5층)

수계동참금
20,000원

문 의
사무국 051-501-7554

전계대화상
성 우 대종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전계대화상)

갈마아사리
수 불 스님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초대회장)

교수아사리
수 진 스님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2대회장)

존중아사리
지 현 스님 (송광사 율주)
경 성 스님 (해인사 율주)
심 산 스님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3대회장)
정 현 스님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상임위원)
원 범 스님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상임위원)
덕 문 스님 (통도사 율원장)
만 초 스님 (전법도량 의장)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